무슨 일 있었나…잇단 죽음 부른 의약 리베이트

병원장 이어 검·경 조사 받던 약국 대표 투신 숨진 채 발견
"광주 리베이트 수사해 달라" 올해초 처벌 감수하고 진정서
약품도매업체 "약값 11억 갚아라" 고소 속 여전히 베일에

불법 리베이트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오던 약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올해 초 약품업체 측이 작성한 '리베이트 수첩'에 언급됐던 광주 모 병원장 투신 사망 사례까지 합치면 불법 리베이트와 연루된 의약인 2명이 스스로 죽음을 택했지만, 그 배경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지난 5일 새벽 2시20분께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A(여·41)씨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숨져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 아파트 13층에 살며 수년간 약국을 운영해 왔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숨진 A씨가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투신했다는 사실과 함께 그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거나 최근까지 받았던 사실을 확인했다.

숨진 A씨는 올해 초 '제약업계에 리베이트 수수가 만연해 있다.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진정을 넣었다. 그는 "나도 약국을 경영하면서 제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 나도 처벌하고 다른 약국과 약품도매상도 처벌해달라"며 진정서를 내 검찰이 리베이트 관련 수사를 벌여왔다.

A씨는 지난 1월 약품도매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6년간 거래 관계를 이어오던 업체 측이 "약값 11억8000만원을 갚지 않고 약국도 문을 닫아버렸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 "'상당기간 거래 관계가 있었던 점에서 민사책임은 있으나 형사책임(사기)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가 처벌을 감수하고 약국업계 불법 의혹을 제보하면서 동료 약사, 약품업체들과 불편한 관계를 만든 배경에 대해선 정확히 알려진 바 없다. 하지만, 경찰과 약품업계 안팎에서는 "A씨가 리베이트는 리베이트대로 챙긴 후 불법 사실을 알고 있다며 거액의 약값 결제를 의도적으로 미룬 것 아니냐"는 해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A씨 사망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아파트에 쓸만한 물건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변인 조사 결과 제약업체 채무, 리베이트 관련 수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1월 8일 수완지구 자택에서 투신, 사망한 광주 모 병원 원장 B(48)씨의 죽음을 둘러싼 원인 역시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지난해 말 광주지방경찰청이 약품업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수첩에 'B원장의 리베이트 관련 구체적 범죄 혐의가 기재돼 있다'는 점에서 B씨가 수사 부담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설득력이 약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제약업체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벌금형 내지 '길지 않은' 징역형이 예상되는 만큼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에서다.

유족들은 당시 B원장 사망사고를 조사하던 경찰에 "경찰 수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방식의 압박이 있었고, B원장과 알고 지내던 지인이 그를 협박하기도 했다. 망자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진술했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강진 오리농장 또 AI 의심신고

인근 16만마리 살처분키로

강진에서 또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강진군 도암면 육용 오리 농장에서 오리들이 폐사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방역 당국은 오리 210마리가 폐사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동물위생시험소 검사 결과에서는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전남도는 농림축산 검역본부에 정확한 혈청형과 고병원성 여부 판단을 의뢰했다.

이 농장에서는 오리 2만2400마리를 키우고 있으며 500m 이내에서는 3농가가 13만8500마리 닭과 오리를, 500m~10㎞에서는 3 농가가 12만1000마리를 사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은 해당 농장, 농장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닭 1농가 9만 마리, 오리 3농가 7만900마리 등 16만900마리를 살처분할 방침이다.

강진에서는 지난달 26일에서 전남도내 오리 농가 일제 검사 중 신전면 오리농장에서 AI가 발생했다.

도암면 농장은 성전면 농장과 5.8km 떨어져 있으며 일제 검사 과정에서 지난달 25일 시료를 조사했을 때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신전·도암면 농장 모두 3km 이내에 철새 도래지인 강진만을 뒀다고 방역 당국은 설명했다.

현재까지 올겨울 전남에서는 8개 시·군에서 23건 AI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1월 이후 42일간 잠잠하다가 지난달 21일, 지난달 26일 해남과 강진에서 H5N8형 AI가 다시 발생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5·18 벌컨포 추정 탄피 등 46점 광주시, 국과수에 공식 감식 요청

13일께 감정 결과 나올 듯
헬기 기총소사 규명 탄력

광주시는 80년 5·18 당시 계엄군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벌컨포 탄피를 비롯한 중화기용 탄피 등을 5·18 기념재단의 의뢰를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공식 감식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감정을 의뢰한 탄피 등은 5·18 기념재단에 기증된 벌컨포 탄피 6점, 일반 소총화기 탄피 등 모두 46점이다.

광주시는 오는 13일께 감정 결과가 나오면 헬기 기총소사 여부를 규명하는 작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벌컨포로 추정되는 탄피는 1980년 5·18 당시인 24일께 김모(62)씨가 광주시 남구와 나주 남평 구간 한두재에서 습득한 3점과 이모(61)씨가 5월 말 봉선동 봉주초등학교 인근 논에서 주워 보관해온 3점 등이다.

기념재단 측은 탄피의 제원, 생산년도, 총탄 종류, 5·18 당시 계엄군이 발포한 총탄과의 연관성(사용 시기) 등을 분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념재단 측은 "감식요청 전 탄피 사진과 탄피 크기, 습득 경위 등을 사전에 들은 국과수 측이 M61형 벌컨포 탄피로 보인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앞서 1월 국과수는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 10층 내부에서 발견된 총탄 흔적에 대해 '헬기 사격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후 벌컨포 추정 탄피 기증이 이어졌으며, 군 문서와 1995년 5·18 검찰 수사기록에도 5·18 당시 공격헬기의 광주 투입 근거가 나오는 등 '헬기 기총소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광주시는 보고 있다.

5·18 직후 전투병과교육사령부 작전처에서 나온 '보급 지원 현황' 문서에 1980년 5월23일 벌컨포탄 1500발이 항공대에 보급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2군 계엄상황일지에도 1980년 5월24일 AH-1J(일명 코브라헬기) 2대와 500MD 헬기 2대가 지상 엄호를 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1989년 국회청문회와 1995년 검찰조사 등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자 증언 등이 나왔지만 국방부는 '탄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일관되게 헬기사격을 부인해 왔다.

한편, 벌컨포의 정식명칭은 M61형 20mm 기관총으로, 주로 공격형 헬기에 탑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동식은 1분에 3000~3700발, 유압식은 1분에 6000발을 발사할 수 있다. 속사에 의한 파괴의 상승효과를 높이도록 고안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는 5·18기념재단의 의뢰를 받고 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5·18 당시 계엄군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벌컨포 탄피를 비롯한 중화기용 탄피 40여점을 감식 요청했다. 사진은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가 최근 시민들에게서 기증받은 벌컨포 탄피, M 60 기관총 탄피 등을 공개하는 모습.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발달장애를 앓고 있던 중학생 A(13)군은 지난 5일 오후 4시5분께 목포시 용당로 한 도로에서 훔친 승용차로 2㎞ 거리를 질주하다 경찰 순찰차 3대와 일반차량 3대 등 모두 6대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현장 모습. 〈전남경찰청 제공〉

발달장애 중학생 "게임처럼 해 보고 싶어서"

차량 훔쳐 운전하다 6중 충돌사고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중학생이 게임처럼 운전해보고 싶어 차량을 훔쳐 운전하다 6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목포경찰은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다 6대의 차량 충돌사고를 낸 A(13·중1)군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일 오후 4시5분께 목포시 용당동의 한 주유소 앞에 시동이 켜진 채 세워져 있던 차량을 훔쳐 타고다니며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이 차를 훔친 지 5분 만에 신호대기 중인 일반차량 3대와 도주로를 차단한 순찰차 3대를 들이받고 멈췄다고 설명했다.

A군은 "스마트폰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게임을 하다가 실제로 운전을 해보고 싶어 차를 훔쳐 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은 발달장애를 앓고 있어 지능이 5세 정도의 수준"이라며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광주 동구 원도심 주택 재개발 활발

10곳 착공·사업시행 인가

광주시 동구 원도심 주택재개발 사업이 활발하다.

동구는 16개 재개발구역 중 10곳이 착공했거나, 사업시행 인가를 마쳤다. 10개 구역 중 8곳은 시공사 선정까지 마쳐 30여곳에 달하는 광주권 전체 재개발 사업 중 동구 재개발이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무등산국립공원 등과 가까워 문화예술과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신흥 주거지역으로 떠오른 덕분에 경기침체에도 재개발 사업이 활발한 것으로 동구는 분석했다. 또 신도심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땅값이 건설사와 부동산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계림동 권역은 계림5-2구역이 지난해 가장 먼저 착공했고, 산수1구역은 분양을 진행 중이다.

계림2·4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마쳤고, 계림7·8구역은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얻어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섰다.

학동권역은 지난 1월 학3구역이 준공돼 1410가구의 입주가 시작됐으며 학4구역이 지난 2월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조합원 분양을 준비 중이다.

지원동권역은 동구문화센터 인근 지원2-1구역이 지난해 착공했고, 소태역 주변 지원1구역도 올해 1월 사업시행인가를 마치고 이달부터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는다.

재개발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는 2020년이면 약 1만5000가구, 3만5000여 명의 인구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동구는 기대하고 있다.

김성환 동구청장은 "조기착공 지원과 더불어 국비 확보를 통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문화·복지·체육시설 확충 등 주민 정주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출동 경찰관 폭행 50대 영장

광주동부경찰은 6일 경찰관을 폭행하고 바지를 담뱃불로 지진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김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오전 7시 30분께 광주시 동구 대인동의 한 여관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남지구대 소속 김모(33)순경의 얼굴을 5차례 때리고, 피고 있던 담뱃불로 그의 바지를 지진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김씨는 혼자서 막걸리 9병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엄벌이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교도소 인연 함께 거주한 여성들 술 문제 시비 끝 술병 던져

쌍나팔

○…집안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거인에게 욕을 하고 술병을 던진 40대 여성이 경찰서행.

○…6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모(여·42)씨는 지난 5일 밤 9시40분께 같이 살고 있는 강모(여·21)씨에게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달라"고 했다가 말을 듣지 않자 욕설을 하며 술병을 던진 혐의.

○…이씨와 강씨는 교도소 수감 중에 만나 한집에 살고 있는데, 경찰은 "이씨가 잠을 자려던 강씨에게 냉장고에서 소주 좀 꺼내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을 하며 집에서 나가라고 했지만, 강씨가 이를 무시하자 소주병을 던지는 등 폭행했다"고 설명.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7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6타경 15554	1	북구 월동로42, 101동 15층 1505호[두암동,미라보아파트] 84.985㎡	아파트	155,000,000 155,000,000	
2016타경 15806	1	광산구 선운중앙로45, 104동 19층 1904호[선암동,선운모아엘가] 84.9856㎡	아파트	295,000,000 295,000,000	
2016타경 16335	1	남구 서문대로654번길24, 202동 10층 1003호[진월동,진월2차삼익아파트] 59.40㎡	아파트	134,000,000 134,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6타경 16731	1	동구 산수동 558-32 124㎡	대	161,387,000 161,387,0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동구 필문대로192번길9-1 48.59㎡부속건물 광16.52㎡ 문간3.3㎡ 제시외점포등19.3㎡	단독주택		
[대지/임야/전답]					
2016타경 15172	1	나주시 동강면 곡천리 산2 31994㎡	임야	121,577,200 121,577,200	분묘위한분묘기지권성립여지있음
	2	나주시 동강면 월송리 산24 6347㎡	임야	44,847,600 44,847,600	일괄매각.목록2분묘위한분묘기지권성립여지있음
		동소 산25 5455㎡	임야		
	3	동소 산26 12397㎡	임야	52,067,400 52,067,400	분묘위한분묘기지권성립여지있음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16타경 13701	1	서구 치평동1161-5 금호타운상가동 지층 1호288.690㎡[골프연습장영업시설매각제외	근린시설	246,000,000 246,000,000	2016타경17581[병합]
2016타경 16533	1	광산구 첨단중앙로152번길81-10 6층 607호 25.9㎡	근린시설	61,500,000 61,500,000	
[자동차,중기]					
2016타경 65795	1	사용본거지:수원시 팔달구 화양로 14-3[화서동] 등록번호:14수7537 차명:QM5 연식:2012	자동차	14,000,000 14,000,000	보관장소:광산구 산정동156현대주차장
2017타경 60049	1	사용본거지:서산시 음암면 탑곡송내길 43-1 등록번호:34부7198 차명:INFINITI G25 연식:2013	자동차	20,000,000 20,000,000	보관장소:광산구 산정동156현대주차장
2017타경 60247	1	사용본거지:음성군 대소면 대물2길 38 등록번호:충북84사7342 차명:뉴파워트럭 연식:2005	자동차	60,000,000 60,000,000	보관장소:광산구 산정동156현대주차장
[기타]					
2016타경 15288	1	담양군 담양읍 지침리 136-38 12㎡	대	127,217,110 127,217,110	일괄매각.136-38번지와타지상136-24번지매각대상아닌건물에법정지상권성립여지있음
		동소 648 66㎡[임용택지분16/20전부]	대		
		동소 649 10㎡	대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 178-4 33.6㎡ 부속건물 사무실 1층26.56㎡ 2층56.91㎡	주택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7. 3. 21. [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7. 3. 28. [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7. 3. 7.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형남곤